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우리가 받는 가장 큰 격려는 바로 여러분들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입니다.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2년 연속 '상위 40%'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병원장 채석래)은 13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상위 40%'에 포함되어 2년 연속 상위 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452곳의 응급의료기관(권역센터 16곳, 전문센터 4곳, 지역센터 119곳, 지역기관 131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영역의 법적 기준 충족률이 58.4%(264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응급의료센터는 필수영역(시설, 인력, 장비 등)과 구조·과정·공공영역(응급진료과정·결과 및 공공성 평가)의 2개 영역이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역 최고의 응급의료센터임을 확인했다. 응급의료센터 이승철 응급실장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24시간 전문진료센터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02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역사, 한 눈에 보아요!

CS경영팀은 1일 환자 및 보호자, 방문객들에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원무과 옆 복도에 연표를 설치했다. 이 연표는 본원의 역사를 '태동과 도전', '성장하고 도약'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약 10여년의 발자취를 한 눈에 엿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태석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환자나 보호자 뿐 아니라 직원들도 연표를 보고 우리 병원의 역사를 바로 알길 바란다"며 "앞으로 동국대학교 병원이 달려갈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03 '에너지절감 운동' 모두 함께 노력해요!

시설관리팀은 지난 6월 에너지절감 홍보 캠페인을 시행한 이후 병원 내 에너지절감운동을 확산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수 부서를 제외한 병원 전 구역의 냉방을 정부 권장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사용시간별로 구분하여 운행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한 내원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정, 후문 입구에 에너지절감 안내문을 게시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다. 한편 본원은 지난 6월 19일부터 한 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이달 1일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들에게 표창장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최우수상에는 재무회계팀 정태민, 그 외 우수상에는 조현선, 이희용, 박용진이 선정되었다. 시설관리팀장은 "정부의 에너지절감 계획에 우리 병원도 협력하기 위해 진료에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에너지절감운동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며 "전 직원 및 환자,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시설관리팀은 에너지절감 아이디어 공모 결과 선정된 다음 제안들을 공유하고 전 직원들의 실천을 촉구했다.
▲자리비움, 퇴근, 점심시간 시 PC/모니터를 끄거나 자동절전 프로그램 설치 ▲대기전력 절약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설치/ 퇴근시 사무기기 콘센트 뽑기/ 냉온수기 끄기) ▲냉난방용 개별전열기구 사용 금지 ▲계단 이용하기

알리미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일시 : 8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설촌경로당

happy hospital 캠페인 '플러스 알파말로 소통하기'

CS강사 캠페인 라운딩 | 일시 : 8월 21일(화), 23(목)

하반기 신규 직원 교육 일시 : 8월 23일(목)~24일(금) | 장소 : 본원 중강당

일시 : 8월 25일(토) | 장소 : 신록사

일본약학대학견학 일시 : 8월 20일(월) 오후 2시

